

청·장년 취업 지원 '광양 일자리트윈 사업' 시작

제철·이차전지 공정관리 직무 체험...올해 교육생 60명 배출 예정 포스코 현장 강사 출강 제선·제강·2차전지 기술 이론·실무 교육

광양시가 추진하는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광양시는 제철과 이차전지 공정관리 과정을 실제 현장과 가상 현장을 통해 직무 체험하는 '광양시 일자리트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8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해 51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광양시 일자리트윈 사업은 시가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참여자들이

만드는 시행착오의 가상 직장 '신의 직장' 프로그램을 통해 청·장년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광양만권HRD센터에서 전담 수행한다. 지난 3월부터 5월 각각 15명을 모집했으며, 7월과 9월 총 4회에 걸쳐 교육생을 모집 선발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기 일자리트윈 과정은 교육생 모집에 26명이 신청해 최종 15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했다. 2기 과정은 지난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은 후 면접을 통해 6월 23일까지 최종 15명

을 선발해 7월 3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포스코 현장 강사가 직접 출강해 제선, 제강, 압연, 2차전지 기술 중심의 이론과 실무를 교육한다. 교육과 함께 입사서류 컨설팅과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올해 총 60명을 교육해 42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화영 광양시 투자일자리과장은 "현장에 가지 않고 현장을 미리 체험하는 가상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제철, 이차전지 산업에 취업의 꿈을 펼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고의 복지로 일컫는 더 나은 일자리, 현장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만권HRD센터에서 교육생들이 현장과 가상현장 직무 체험하는 제철·이차전지 공정관리 교육을 받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주~고흥 우주센터 87.7km 고속도로 건설 시동

국토부, 사전 기획 조사 용역...교통 여건·향후 수요 등 검토

광주시와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연결하는 87.7km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을 타진하는 용역이 실시된다. 고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기획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광주~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는 고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과 직결된 만큼, 급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18일 군청 우주홀에서 열

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전남도-고흥군 현안 회의에서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공영민 고흥군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 유치는 물론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까지 중앙부처가 직접 나서서 총력으로 도우라고 하셨다"고 전하며, "나로우주센터는 대한

민국에서 우주로 가는 터미널 같은 곳이므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흥군은 이번 '광주~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사전 기획 조사 용역'이 교통 여건·향후 교통수요, 지역의 경제 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하는 기본계획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사전 기획 조사 용역의 내실 있는 결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민선 8기 비전인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군, 여순사건 교육 도서 발간

'들꽃으로 피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초·중·고에 배부

구례군이 여순사건 교육용 도서 '들꽃으로 피어 다시 만날 수 있다면'을 발간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한다. 구례군이 제작한 '들꽃으로 피어 다시 만날 수 있다면'은 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의 피해사례들을 모아 규명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교육용 도서다. 교육용 도서에는 여순사건의 전개과정과 구례 지역 여순사건 개별 사례와 피해 유족들의 증언 등이 수록됐다. 쉬운 용어와 삽화 등을 활용해 어린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큰 활자를 사용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는 사건 당시 반군의 은신처였던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비공식적으로 3000명 이상의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여순사건이라는 단어는 트라우마와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금기어로 각인되어, 군민들의 공



감대가 형성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용 도서 제작을 통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화합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LED 경관조명으로 확 바뀌는 광양의 야경

포스코, 6억3000만원 투입 백운아트홀·어울림체육관 등 설치 9월 준공...관광객 유치 기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백운아트홀·백운플라자·어울림체육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조명은 해당 시설의 외관이 더 수려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건물 테두리에 LED바(띠 조명)를 설치하고 외벽에 조명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야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총 6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경관조명 개선 사업은 금호동 주요 도로인 백운로를 기준으로 가시성이 높은 건물에서 진행돼 야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7월 착공해 9월에 준공 예정이다. 앞서 광양시는 올해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의 원년으로 삼고, 최고·최대·최다 3원칙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을



어울림체육관 LED 야간조명 설치 예상 조감도.

내놓은 바 있다. 광양제철소는 이같은 광양시 정책방향에 호응하고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함

께 지역 미관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1000만 관광객도시 광양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글·사진으로 엮은 보성 주민 히로애락



노동면 복지센터 7월까지 전시회

보성군이 마을 주민들의 말과 사투리 등 삶의 전반을 사진과 글로 엮은 '마을 주민 생애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7월 말까지 노동면 복지문화센터에서 '마을 주민 생애사'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 '마을 주민 생애사'는 노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시 작품은 노동면에 거주하는 56가구의 주민 생애 전반을 사진과 글로 담았다. 특히 어르신들의 말과 사투리를 그대로 기록해

지역 방언과 향토 언어를 기록 보존했다. 이번 전시는 일평생을 보성에서 살아온 지역민의 진솔한 모습과 삶이 생생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마을 주민 생애사 제작 전시'를 읍면 우수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성군 전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면 복지문화센터 협동조합 문경식 대표는 "제작 초기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사진과 말씀이 참여 주민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 75세 이상 어르신 '유자골 고흥 한우' 본격 출하 내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내년부터 여수에 사는 75세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게 된다. 여수시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2024년 1월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회 이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복지사업이다. 여수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추경예산으로 교통복지카드 발급비용 등 시스템 구축비 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대상 인원은 지역 75세 이상 총 2만 5000여 명이다. 연간 약 14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우선 75세 이상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펼치고, 재정부담과 인구 고령화 추이 등을 살펴 점진적으로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이 명품 한우 브랜드로 키워내고 있는 '유자골 고흥한우'가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다. 군은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유자골 고흥한우' 육성을 위한 4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달 24일 브랜드육 출하와 유통·판매를 시작한 유자골 고흥한우는 이달 10일까지 모두 22두를 선별·도축했다. 전국적인 한우 가격 하락 추세에도 유자골 한우는 높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다. 유자골 한우 도매가격은 마리당 평균 837만 9000원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고시된 평균 한우 가격(718만4000원)보다 120만원가량 높다. 유자골 고흥한우 생산에는 고흥 300여 축산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2만여 두의 브랜드 한우를 키워내고 있다. 고흥군은 브랜드 참여 농가를 계열화하고 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고급육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고흥 한우를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



해 고흥군 소속 사업단과 참여 농가는 지난달 말 1박 2일 동안 황성한우 브랜드와 나주축산물공판장 등 3곳의 선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적 위기와 한우 사육환경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육 출하를 발판으로 고흥한우의 옛 명성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 미평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개장

천연잔디·울타리 등 갖춰...동물 등록한 중·소형견 이용

여수시가 미평공원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미평공원 내 440㎡(130평) 규모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됐다. 천연잔디·울타리·정검다리 및 시소 등 놀이기구, 견주 쉼터·반려견 음수대·배변 봉투함 등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주말에도 운영하며 비가 오는 날은 휴장한다. 놀이터 이용은 전국 반려견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하의 중·소형견만 입장할 수 있다. 맹견 및 맹견의 잡종견은 사용할 수 없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영유아 단독입장 불가 ▲출입명부 작성 ▲반려견 인식표 착용 ▲놀이 내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운영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수시는 놀이터 내 CCTV를 설치해 만일의 사고와 분쟁을 방지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반려견 놀이터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평공원을 시작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해 반려견의 공간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kwangju.co.kr